

# 동부권 광역 쓰레기 처리시설 무산되나

### 여수·순천시, 별도 추진 움직임 보유시설 여유 광양시도 유보 부지 문제·주민 수용성 입장차

여수·순천·광양시가 공동 협력 사업으로 추진했던 광역 쓰레기 처리시설 건립 계획이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전남 동부권 도시 여수·순천·광양시에 따르면 세 지자체는 지난달 2일 민선 8기 첫 행정협의회에서 광역 쓰레기 처리시설 건립 사업에 공동 협력하기로 하고 실무 협의를 했다.

광역화는 매립장 신설이 시급한 순천시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세 지역이 같은 생활권이고 비용 절감, 시설 운영 효율성, 여수·광양산단과 연계한 에너지원 확보 등 측면에서 광역화가 필요하다는 데 세 지자체가 공감하고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민감한 부지 문제 등에서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논의가 중단된 데 이어 사업 당사자인 여수시와 순천시도 각 지역에 별개로 쓰레기 처리 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광역화를 제안했던 순천시는 쓰레기 처리 시설 확보 시한이 촉박한 만큼 광역화 논의와 함께 별도 처리 시설 입지 선정 절차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이 필요한 도심까지 입지로 염두에 두고 지난 25일 쓰레기 처리시설 입지 선정 계획을 공고했다.

입지 기준으로 주민 접근이 용이하고 지하에 친환경적으로 설치하고, 지상은 융복합 문화체육시설로 조성하며 자원순환 에너지의 생산과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곳 등을 제시했다.

순천시는 민선 7기 지역 내 매립장 신설 계획을 세우고 후보지까지 선정했으나, 환경 오염을 이유로 주민들이 반대하고 후보지와 인접한 광양에서도 반발해 진척이 없었다.

민선 8기 노관규 순천시장 취임 이후 같은 생활권인 여수·광양까지 아우르는 광역화를 제안하고 시설을 재추진해왔다.

광역화에 반대하지 않았던 여수시도 최근 기존 쓰레기 처리 시설을 재활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2029년까지 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로드맵을 세웠다.

기존 시설을 친환경적으로 증설하고 쓰레기를 자원하는 등 재활용에 방점을 두고 있다.

여수시와 순천시가 이처럼 지역별로 쓰레기 처리시설 건립을 따로 추진하는 데다, 광양시도 현재 보유 시설에 여유가 있고 사전 논의도 필요하다는 이유로 광역화에 유보하는 태도를 보여 광역화 사업을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순천시 관계자는 "시설 건립이 시급한 만큼 내년까지 입지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광역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는 만큼 관련 논의는 일단 올해까지는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1단계 구간 공사 현장. <완도군 제공>

## 완도군, '더 가까운 교통망 구축' 박차

### 광주~완도 고속도로 공사 속도 완도~고흥 해안도로 착공 노력

완도군은 군의 3대 전략 중 하나인 '더 가까운 교통망 구축'에 나선다.

완도군은 광주-완도 고속도로 2단계 구간, 완도-고흥 간 해안관광도로 연도·연륙 사업, 노화-소안 연도교 2단계 구간의 조기 착공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특히 해당 사업들은 현 정부 국정 과제에 반영됨에 따라 행정 절차 축소와 국비 확보가 가능해져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먼저 광주-완도 고속도로는 총 88.61km, 4차선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광주 서구-강진 성전까지 1단계 구간의 현재 60%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

강진 성전-해남 남창 2단계 구간은 국정 과제와 '제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중점 추진 노선으로 반영돼 국토교통부에서 사전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며, 내년도에는 예비 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등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이 도로가 개통되면 현재 광주-완도 간 이동 소요 시간이 1시간 내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완도-고흥 해안관광도로는 약산-금일-금당-고흥 거점도 구간을 5개 교량으로 잇는 사업으로 국

비 9000억이 투입되며, 군은 건설을 앞당길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정치권을 설득하기 위한 논리를 개발하고자 타당성 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한다.

이 도로가 건설되면 내륙으로 우회해 3시간 걸렸던 이동 시간이 30분 내로 단축되고, 영호남 접근성 개선으로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 관광객 유입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화-소안 연도교 건설은 2단계로 나누어 추진되고 있으며, 1단계 구간인 노화-구도 연도교는 지난 2017년 개통했다.

2단계 구간인 구도-소안 연도교는 지난 2월, 해남 송지-노화-소안 구간이 지방도 806호로 지정되었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입 및 전남도에서 시행 예정인 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밀그림이 그려질 예정이다.

이밖에 국비 412억원을 투입해 국도 77호선 고금 구간의 골곡도로 개선 등 시설 개량 사업도 실시한다.

이 사업은 지난해 9월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에 반영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기본 및 실시 설계가 진행 중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교통편의 증진으로 정주 여건 개선 등 군민 삶의 질 향상을 물론 관광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교통망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 화순군 거점 세척·소독시설, 화순축협 가축시장으로 이전

### 5억 8600만원 투입 새 시설 설립 연중 24시간 상시 운영체계 유지

화순군이 11월부터 거점 세척·소독시설을 농업 기술센터에서 화순축협 가축시장으로 이전해 운영에 들어간다.

화순군은 5억 8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거점 세척·소독시설을 화순축협 가축시장에 준공했다고 밝혔다. 새 시설에는 세류시설, 터널식 세척·소독장치, 대인소독기, 소독필증 자동발급 시스템 등 설비를 갖췄다.

가축운송차량, 사료차량 등 축산차량은 농장 방문 전·후 거점 세척·소독시설을 경유해 소독해야 하는데, 군은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한 소독시스템을 구축, 연중 24시간 상시 운영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모든 축산 차량은 농장 방문 전·후 거점 세척·소독시설을 경유해 소독해야 한다"며 "축산 농가에서도 적극 협조해 가축전염병



화순축협 거점 세척·소독시설 내부 모습. <화순군 제공>

이 지역사회에 유입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 농업정책과 동물방역팀(061-379-3656)에 문의하면 된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 여수시, 2년 5개월 '코로나19 대응백서' 발간

### 전자책 시 홈페이지 게시

여수시가 코로나19 대응 과정을 기록한 백서를 발간했다.

여수시는 2020년 1월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부터 2022년 5월까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선별진료소 운영 현황 등 여수시의 대응과 방역대책 등이 낱알이 수록한 '코로나19 대응백서'를 발

간했다고 밝혔다.

제1편에는 코로나19 개요 및 현황, 제2편에는 코로나19 대응체계 및 주요활동과 백신접종, 제3편에는 코로나19 위기에 함께 맞선 분들의 생생한 이야기가 담겼다.

백서에 따르면 2022년 5월까지 총 120여만 명의 시민이 여수시 선별진료소(드라이브스루 포함)를 이용했다.

또 2021년까지 총 7만 2659건의 검체가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72명으로 구성된 여수시 '즉각 대응반'은 지난 5월까지 총 611회의 현장 출동, 4961명의 해외입국자와 접촉자 방문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이번 발간된 '코로나19 대응백서'는 향후 유사한 상황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데 활용될 예정이다.

백서는 시 홈페이지에 전자책(e-book)으로 게시되며, 내년부터 실물 책자로도 만나볼 수 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 광양 치매안심센터 '행복한 동행 가을 나들이'

### 백운산 치유의 숲서 즐거운 하루

광양시 치매안심센터는 최근 치매환자와 가족, 치매안심마을 돌봄대상자와 함께 백운산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으로 '2022년 행복한 동행 가을 나들이'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치매어르신과 가족 간 정서적 교류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리적 부담을 줄여 행복감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광양시 옥룡면에 위치한 백운산 치유의 숲에서 숲 해설사의 프로그램 진행 하에

편백숲 걷기, 이완 요법, 향토 걷기, 편백나무 즉석, 전통차 시음, 열쇠고리 만들기 등을 통해 몸과 마음의 위로와 안정을 갖고 심신을 치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홍기 치매안심센터장은 "앞으로도 치매환자와 가족 지원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치매 어르신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시치매안심센터 가족교실 및 프로그램 참가 희망자는 전화(061-797-4059, 4121)로 문의하면 된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 논슬립 디자인데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02-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